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이 용 교*

- I. 대학생의 친구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II. 대학생에게 친구는 누구인가
- III. 대학생은 이성친구를 어떻게 사귀는가
- IV. 대학생은 친구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 V. 대학생의 건강한 친구관계를 위하여

I. 대학생의 친구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 문제제기

대학생의 친구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이 좋은 이유로는 친구와 사귀 수 있어서가 가장 많고, 학교에 가는 것이 싫은 이유로는 지나치게 공부만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문화방송: 69-71).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있고,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임을 당연시하더라도 학교생활에서 친구관계의 중요성은 결

코 경시될 수 없다. 청소년기의 친구관계는 가족 중심의 인간관계에서 친구 중심 또는 가족과 친구를 축으로 하는 인간관계로 변화하는 시기이므로 매우 동적이다. 또한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성친구 관계가 새롭게 부각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의 친구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

이에 비교할 때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거의 없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첫째는 대학생을 엘리트만으로 보는 전통적인 시각 때문이다. 대학교육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대학생은 일정정도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주도하는 층이었다. 대학생의 주된 관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처럼 도식화되었다. 이때문에 사회적 관심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그것의 변화에 쏠렸고, 연구자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둘째는 대학생을 운동권 학생 여부로 보는

* 한국청소년연구원 주임연구원

이데올로기적 시각 때문이다. 대학생의 사회참여를 중시하고, 특히 사회변혁 운동에 대한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대학생들을 “운동권”과 “비운동권”으로 무리하게 구분하고, “운동권” 학생들의 운동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대학생들의 삶에 대해서는 경시한 시각은 주요 신문과 방송의 보도와 전국 대학교의 사회과학연구소나 통일(문제)연구소의 연구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셋째는 대학생에 대한 백화점식 실태조사 때문이다. 설문조사 방법이 보편화되면서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이 학생생활연구소를 통하여 매년 “신입생 실태조사”와 “재학생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연구가 수량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다. 즉 학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학생의 인적 배경, 가정환경, 경제적 여건, 진학배경, 학과선택, 진로계획, 대학생활의 기대, 과외활동, 사회에 대한 기대, 사회에 대한 관심, 가치관, 학생생활연구소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한 포괄적인 “실태분석”만 있고(김유신 : 1-16) 친구관계와 같은 특정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넷째는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관한 관심이 씨클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각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를 중심으로 씨클에 대한 태도와 참여형태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있어왔고, 주로 씨클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많이 제시하고 있으나, 씨클활동은 대학생의 친구관계의 일부에 해당될 뿐이다.

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낮고,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거의 없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 취학률이 30%내외인 한국에서 대학생들을 엘리트 집단으로 보는데는 한

계가 있고, 설사 엘리트 집단이라도 필자는 그들이 주장하는 구호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학생의 삶을 이해 하고자 할 때, 그들이 쓴 “대자보”나 연구기관의 상투적인 “실태조사”나 씨클활동을 통해서만 대학생의 삶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편협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대학생의 복잡한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깊이있는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삶의 한 면인 친구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대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연구목적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대학생의 친구관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한다. 친구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중·고등학생의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나, 이 집단에 대학생과 근로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가 다소 있을 뿐 대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조사연구에서도 친한 친구가 있느냐,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느냐,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 등 극히 초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치고 있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a) : 161-167). 이 연구는 대학생의 친구관계를 조사하고 고등학생등 다른 집단과의 차이점을 찾고자 한다.

둘째는 대학생의 친구관계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친구관계는 시간과 함께 변화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고등학교졸업과 대학입학을 경험한지 1년이 못되는 신입생과 2학년 이상의 재학생간의 친구관계를 분석하여 그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는 대개 신입생 실태조사와 재학생 실태조사를 별도로 수행해서 그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다만 한 덕웅(1986)의 연구는 한 전문대학 신입생의 친구 관계가 입학초인 3월말에서 다음해 5월까지(14개월간)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학년과 2학년이상으로 양분해서 두 집단의 차이를 시간에 의한 변화로 이해하고자 한다.

셋째는 대학생의 친구관계를 성별로 나누어서 이해하고자 한다. 우리는 흔히 서로 성격이 다른 집단을 하나의 용어로 파악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대학생이란 용어도 그중 하나이다. 대학생은 고등학생과 비교할 때 연령의 차이가 매우 크고, 성장지도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전공에 따라서 관심분야도 다양하고, 성별에 의한 차이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남자 대학생은 가능한 한 대도시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고 재학중에 군입대를 하기 때문에, 대개 부모의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진학하고 휴학없이 진급하는 여자대학생에 비교할 때 학년이 높을수록 남녀대학생은 그 성격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조사집단을 성별로 나누어서 친구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상식적인 물음에 대답을 찾아가면서 대학생의 친구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 ① 대학생에게 친구는 누구인가?
- ② 대학생은 이성친구를 어떻게 사귀는가?
- ③ 대학생은 친구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 ④ 대학생의 건강한 친구관계를 위해서 대학

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위의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문헌연구를 하였다. 문헌연구는 친구관계에 관한 단행본과 조사보고서 그리고 일본과 미국 고교생 친구관계 조사를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친구란, 친구의 종류, 이성친구, 만남·데이트·연애, 우정관리, 친구와 자주가는 장소와 횟수, 자주하는 놀이, 친구와 모임, 친구와 사회, 친구학 등으로 유목화해서 5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지고 그 반응을 알아보았으며, 가장 친한 친구 한사람에 관한 사항과 응답자의 일반사항을 파악하였다.

설문지의 구상은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소간 준비작업이 필요했다.

먼저 필자에게 사회학 강의를 받는 대학생들에게 친구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항을 묻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100여명의 수강생에게 한 학기동안 매주 친구란, 친구의 종류 등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 용지 1매 분량의 쪽지글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필자는 매주 그 쪽지글을 숙독하고 가장 자주 거론되는 사항이나 쟁점거리를 정리하여 설문지 초안을 구상하였다. 구상된 초안은 각 유목별로 질문이 8-9개이었는데, 사전조사를 통하여 질문을 일부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본 조사 설문지를 만들었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재학하는 일부 대학생에 한정시켰다. 이 연구는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대한 시론이기 때문에 전국대학생을 고루 표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조사대상자가 지역간, 학교간에 다양하면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학년별, 성별 차이가 사상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한된 범위에서 임의로 조사대상자를 표집하였다.

설문조사는 1991년 11월중에 실시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327건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22건을 제외하여 분석된 설문지는 305건이다. 유효설문지는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입력된 자료는 SPSS PC+로 통계처리 되었는데, 주로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 자료를 사용하였다.

교차분석은 먼저 응답자의 성별(남 224명, 여 81명)에 따라서 각 질문의 응답을 분석하고, 계속해서 응답자의 성별을 통제한 후에 학년별(남 1학년 117명, 2학년 이상 107명; 여 1학년 27명, 2학년 이상 54명)에 따른 각 문항의 응답을 분석하여 지면관계상 통계적으로 유의도가 높은 사항만 언급하였다.

필자는 대학생의 친구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첫째는 설문지에서 “친구”에 대한 개념정의의 불확실성이다. 응답자들은 상식으로 아는 “친구”로 이해하고 질문에 응답하였을 것이다. 필자가 친구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응답자 일반이 취하는 “친구관계”에 대해서 알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설문지 구성의 독창성과 응답항목의 확실성이다. 설문지 구성의 독창성은 본 연구의 장점일 수 있으나, 역으로 선행연구에서 적합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이기도 하다. 또한 응답항목이 확실적으로 3등분되어 있어서 응답자의 선택의 폭이 좁았다.

셋째는 조사대상자 표집의 한계이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의 대학생을 표본으로하여 “대학생”의 친구관계를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이 대학은 서울에 있는 남녀공학의 종합대학교이기 때문에 본 조사의 자료는 지방대학, 여자대학, 단과대학이나 전문대학의 “대학생”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넷째는 자료의 해석상의 한계이다. 예컨대 질문문항중 “고향친구는 언제 만나도 격의 없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것을 “고향친구는 언제 만나도 격의 있다”라고 해석하느냐 “고향친구도 자주 만나야 격의 없다”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의 차이는 커진다. 더구나 고향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가 “모르겠다”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위에서 지적된 네가지 한계는 대부분의 조사연구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이기 때문에 필자에게도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다만 위와 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자료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주의가 필요하고 아울러 세부적인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부연하고자 한다.

II. 대학생에게 친구는 누구인가

1. 친구란

친구의 사전적 의미는 “오래두고 정답게 사귀어 온 벗”이다. 대학생중 친구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당신에게 친구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선뜻 대답할 대학생은 많지 않다. 필자가 대학생들에게 “친구, 친구란, 나의 친구”중 택일하여 쪽지글을 쓰게 하였을 때 많은 대학생들은 “나의 친구”라는 구체적인 제목을 택하였고, 다소 추상적인 “친구” 또는 “친구란”에 대해서 쓴 사람은 많지 않았다.

더구나 상당수는 친구란 제목을 받고 어리둥

절 했고, 막상 무엇을 쓸 것인지 앞이 캄캄했다고 속마음을 털어 놓기도 했다.

친구란 무엇인가? 친구는 가족 못지 않게 중요한 존재이고, 오래될수록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대학생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으나,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줄어든다

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는 친구에게 해주는 만큼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품앗이 논리가 친구관계에서 통용됨을 인정하고, 친구 사이가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사이일 수도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표 1〉

친 구 란

	긍정	중간	부정
1. 오래될수록 좋다.	77.7	19.3	3.0
2. 가족 못지 않게 중요한 존재이다.	83.0	15.4	1.6
3.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줄어든다.	46.9	39.3	13.8
4. 친구에게 해주는 만큼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27.5	63.3	9.2
5.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사이이다.	13.4	57.0	29.5

친구에 대한 의미는 남녀 대학생간에 일부 차이가 있다. 남자는 여자에 비교할 때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친구에게 해주는 만큼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주장에 더 찬성하고 있다.

친구의 의미에 대한 위의 다섯가지에 대해서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2. 친구의 종류

한 조사에 의하면 대학생이 좋아하는 친구유형은 원만하고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 넓은 이해심이 있는 사람, 적극적인 활동가, 정직한 사람등이라고 한다(한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99).

그런데 친구의 종류를 이처럼 분류한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해당되는 것에 모두 응답하라고 한다면 원만하고, 명랑하며, 넓은 이해심이 있고, 적극적이며, 정직한 사람은 친구로서 모두 환영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

와 어떻게 다른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고향친구, 학과친구, 동아리친구 등 연고유형에 따른 친구관계를 살펴보았다. 상당수의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친구는 보다 정적이고 대학교 친구는 좀 이기적이며, 대학친구는 폭은 넓어지고 관계는 형식적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대학교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와 비교할 때 선택의 폭은 매우 넓어진다. 고등학교 친구는 대학입시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새벽에서 밤까지 한 교실에서 같이 보낸 동일지역의 동갑내기 동성친구가 대부분이나, 대학교 친구는 전공, 성장지, 성별, 연령 등이 다른 사람도 친구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질성이 강한 대학교 친구는 우정의 뿌리가 깊지않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친구와 고향친구를 그리워하고, 나이들수록 사람사귀는 것이 점점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대학생들은 학과나 동아리

를 통해서 끊임없이 친구를 사귀고 있다.

〈표 2〉

친구의 종류

	긍정	중간	부정
1. 고등학교친구는 보다 정적이고 대학교친구는 좀 이기적이다.	45.9	42.0	12.1
2. 대학친구는 폭은 넓어지고 관계는 형식적이다.	43.9	44.3	11.8
3. 고향친구는 언제 만나도 격의 없다.	42.0	48.5	9.5
4. 동아리친구가 학과친구보다 정이 간다.	24.6	43.0	32.5
5. 나이들수록 사람사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	49.2	31.5	19.3

친구의 종류에서도 남녀 대학생간에 약간의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위의 다섯가지 중에서 대학교친구는 좀 이기적이며, 고향친구는 언제 만나도 격의 없다는 것에 대해서만 남자는 여자보다 더 찬성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남녀간의 성별차이보다는 남녀대학생의 성장지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다. 본 조사에서 남자의 54.0%만이 서울 경기에 있는 고등학교의 출신자이나 여자는 74.1%로 상당수의 여자대학생들은 고향친구가 없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학년이 높아갈수록 남녀대학생 모두 학과친구보다 동아리친구에게 더 정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특히 여자대학생들은 나이들수록 사람사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호소한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조사에서도 밝혀지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친구보다 대학교의 학과친구와 더 자주 연락하고, 대학교 친구중에서도 학과친구, 씨클선후배, 학과선후배 순으로 자주 연락을 취하며 더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민경외: 190-192).

3. 가장 친한 친구

청소년 연배집단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청소년의 소집단에는 그 구조와 기능이 다른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J.Horrock는 청소년 연배집단을 단짝(*chums or peers*), 끼리끼리(*cliques*), 패(*crowd*), 패거리(*gang*)등으로 나누고 있다. 그에 따르면 단짝에서 패거리로 갈수록 어울리는 친구 수는 2명에서 7-8명까지 늘어나지만 그 친밀도는 떨어진다고 한다(전병재: 76).

한편 Sullivan은 청소년기의 친구관계는 세 가지 단계—청소년이전기, 청소년초기, 청소년후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청소년이전기에는 단 두사람 사이의 동성관계인 단짝이 특징적이고, 청소년초기에는 동성끼리의 친밀감에서 이성끼리의 친밀감으로 이행하며, 청소년후기에는 동성간의 친밀감보다 이성간의 성적관계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고 한다(이춘재 외: 179-183).

한국대학생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 성별, 신분, 연령에서 얼마만큼의 동질성을 서로 가지고 있는가? 만약 그 친구가 대학생이라면 학년, 학번, 학과등이 얼마만큼의 영

향력을 주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주된 연고유형이 친구관계에서 얼마나 구체화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가장 친한 친구의 주류는 동성·동년배·대학생이다.

재수를 하여 입학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비록 학년과 학번까지 같은 경우는 전체의 과 반수이지만 가장 친한 친구는 자신과 동질성이 높은 사회집단에서 사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된 연고는 중·고교동창이 가장 많고, 다음은 대학친구, 고향친구의 순이다. 대학친구의

경우에는 과친구 또는 동아리활동을 같이하는 과친구, 동아리친구와 단짝인 경우가 많다.

가장 친한 친구의 인적사항과 연고유형은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또한 1학년보다 2학년 이상이 남녀 모두 이성친구와 같은 학과 학년 학우의 비율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대학생들은 1학년 때에는 고등학교때의 친구관계에 크게 의존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학의 학과와 동아리에서 친구를 사귀고, 차차 동성관계에서 이성관계로 이행함을 알 수 있다.

〈표 3〉

가장 친한 친구 한사람에 관한 사항

1. 성별	① 동성	90.8	② 이성	9.2				
2. 신분	① 대학생	73.1	② 기타	26.9				
3. 연령	① 같은연령	89.5	② 기타	10.5				
4. 학년	① 같은학년	55.1	② 기타	44.9				
5. 학번	① 같은학번	55.4	② 기타	44.6				
6. 학과	① 같은학과	27.5	② 기타	72.5				
7. 연고	① 고향친구	15.7	② 중고교동창	47.2	③ 대학친구	27.2	④ 기타	9.8
8. (대학친구일 경우)의 연고유형	① 과친구 29.2 ② 동아리 5.2 ③ 과+동아리 9.5 ④ 기타 13.1 ⑤ 비혜당 43.0							

III. 대학생은 이성친구를 어떻게 사귀는가

1. 이성친구

청소년에게 이성친구가 있느냐는 질문은 청소년의 친구관계 조사에서 빠지지 않는다. 스웨덴, 스위스, 미국, 영국 등 유럽권에서는 이성친구를 가진 비율이 전체의 90% 내외이기 때문에, 이성친구가 있느냐는 질문은 상투적이지만 그 비율이 50% 내외인 한국과 일본에서

는 여전히 관심거리이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a): 327).

최근 문화방송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성친구가 있는 사람은 중1학년에 12.8%에서 고3학년에 37.7%로 중·고등학생의 이성교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문화방송: 30).

이번 조사에서도 대학생들은 고등학생의 이성교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부모들의 시각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대학에 입학한 후에야 이성친구를 사귀도록 허용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대학생

들은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의 이성교제를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에게 올바른 이성교제를 가르쳐주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고등학생중에는 이성친구를 사귀고 있거나 사귀어 적어 있는 사람이 반수정도이고 그중 상당수는 애무, 키스, 성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때(문화방송:301), 이성교제 방법에 대한 교육이 매우 절실한 것처럼 보인다.

고등학교 졸업후 이성교제는 비교적 자유롭

지만, 올바른 이성교제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 나오기 때문에, 상당수의 대학생들은 동성친구는 가까워질수록 허물이 없고 이성친구는 가까워질수록 부담스럽다고 한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이성친구라는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든데, 여자보다 남자가 더 “그렇다”라고 응답한다.

그밖에 이성친구에 대해서는 성별,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표 4〉

이 성 친 구

	긍정	중간	부정
1. 고등학생의 이성교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19.7	50.5	29.8
2. 어른들은 고등학생에게 올바른 이성교제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89.5	8.5	2.0
3. 대학에 입학한후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이 허용된다.	54.1	25.9	20.0
4. 동성친구는 가까워질수록 허물이 없고, 이성친구는 가까워질수록 부담스럽다.	18.0	48.9	33.1
5. 나이가 들수록 이성친구라는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37.7	38.7	23.6

2. 교제 과정

Dunphy는 오스트레일리아 청소년연구에서 청소년초기에는 서로 분리된 동성또래 집단을 유지하다가 청소년후기로 갈수록 이성혼합 집단을 이루게 된다고 한다.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연령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의 관심사항은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대학생이 이성교제를 하느냐에 있다. 한때 이성을 만나는 계기를 주는 미팅은 대학생활의 꽃처럼 여겨진 적이 있었다. 미팅에 얹힌 사연은 끊임없는 이야기 거리가 되고 미팅에서 만난 커플이 결혼으로 성공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현재는 어떤가? 미팅은 대학생활에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부이고, 더구나 미팅을 자기 반쪽을 찾기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여기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오늘날 고등학생의 경우 지난 1년간 미팅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 40%이상이고, 일부 중학생도 미팅을 하여서 미팅은 더이상 대학생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미팅은 대부분 “혹시나 해서 나갔다가, 역시나 하고 돌아온다”는 일회성 만남으로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이성친구가 연인이 되기에는 미팅보다는 일상생활속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인생의 선택중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 배우자 선택이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캠퍼스 커플에 대해서는 다른 친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과정에 대해서는 성별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교해서 미팅

은 대학생활에 즐거움을 주고, 배우자 선택이 어렵다는데 공감한다.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 갈수록 미팅보다는 데이트와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관심이 증대되지만 이성교제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표 5〉

만남·데이트·연애

	긍정	중간	부정
1. 미팅은 대학생활에 즐거움을 준다	30.2	48.5	21.3
2. 미팅은 자기 반쪽을 찾기위한 노력의 하나이다.	16.1	37.0	46.9
3. 이성친구가 연인이 되기에는 미팅보다 일상생활속의 만남이 중요하다.	82.0	15.1	3.0
4. 인생의 선택중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 배우자 선택이다.	63.3	25.9	10.8
5. 캠퍼스 커플은 다른 친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다.	20.0	54.1	25.9

IV. 대학생은 친구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1. 우정관리

친구관계의 어려움은 단지 이성교제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동성간의 우정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낮모르는 타인이 친구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공통점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감에 따라서 친구의 범위가 동네친구 학교의 동급생 직장동료 등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생활속의 만남은 매우 동태적이다.

도시생활의 경우 이사가 잦기 때문에 동네친구가 자주 바뀌거나 점차 사라지고, 학교 친구도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몇차례의 큰 변화가 있으며 매년 반편성이 새롭게 되기 때문

에 친구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옛 친구는 사라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된다.

친구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지리적인 근접성은 기본조건이지만 마음의 거리가 좁혀질 때 친구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우선 내마음을 열어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이고, 우정이 깊어질수록 서로의 행동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게 된다.

즉 사교초기에는 인사하고 반가워하며 협조하다가 반년정도 지나면 미안해하고 부탁하며, 일년이 지나면 아끼고 걱정해 주는 행동 등이 추가된다고 한다(한덕웅, 1986).

친구관계는 위와 같은 동조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 질투, 오해 등 적대행위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정은 싸우면서 자란다는 속설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수용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친한 친구일수록 예의를 지키면서 사귀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때의 친구 일부와

친구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학의 학과와 동아리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은 고교때까지의 좁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는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우정관리에서 성별차이는 친구사이라도 안보

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남녀 모두 학년별로도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 즉 남녀 모두 우정관리를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예의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6〉

우 정 관 리

	긍정	중간	부정
1. 친구사이라도 안보면 멀어진다.	51.1	38.4	10.5
2. 친구가 되려면 우선 내마음을 열어 상대방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	89.2	9.2	1.6
3. 친한 친구일수록 예의를 지키면서 사귀어야 한다.	72.1	22.0	5.9
4. 우정은 싸우면서 자란다.	28.5	52.5	19.0
5. 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	63.6	26.6	9.8

2. 놀 이

우정관리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고, 관념의 유희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이다. 청소년기의 친구관계의 특징은 놀이이다. 즉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무언가 즐거운 놀이를 하는 집단이 친구집단이 된다. 이는 단지 가까이에서 자주 만나는 어린시절의 동네친구와도 다르고, 의례적이고 상호 거래를 염두에 둔 성인들의 사교문화와도 다르다.

친구사이의 놀이는 친구의 수와 친밀도에 따라서 그 특징을 달리한다. 대체로 3~4명 이내의 소집단(단짝이나 끼리끼리)은 학교생활, 과외활동, 취미활동 등에 있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폐쇄적으로 활동하지만, 대집단에서는 대화와 같은 친밀하고 개인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파티, 춤추기, 친목회 등 사교적인 활동만 할 뿐이다.

대학생들이 친구와 만나서 자주 가는 곳과

자주하는 놀이는 무엇인가? 남자가 자주 가는 곳은 당구장과 술집이고, 여자가 주로 가는 곳은 커피숍과 쇼핑 장소이며, 남녀 모두 휴게실, 동아리방, 오락실 등을 자주 찾는다.

대학생들의 놀이문화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혼자면 전자오락실, 둘이면 당구장, 셋이면 커피숍이나 카페 그리고 네명 이상이 모이면 술집을 찾는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일부 대학생만 그러한 유형에 속하겠지만, 대학문화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때로는 춤추는 술문화와 떼어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다. 또한 먹기대기나 시간보내기의 차원을 넘어서 고돌이와 카드놀이 등에 대해서는 대학생 스스로 친교와 스트레스해소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본다.

대학생의 놀이문화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마땅한 대안문화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모였다고 하면 술만 퍼마시는 형태는 점차 누그러지고, 틈만 나면

교내 어디서나 족구를 하고, 이념지향 소모임 활동보다 취미활동 동아리가 확산되는 것은 새로운 흐름이다.

이점에서 여행은 권장할 만한 놀이이다. 주말여행이나 휴가여행과 같이 숙박을 하는 여행은 물론이고, 일상생활권 내에서 자신의 전공

이나 관심사에 따라서 “주제”를 정하여 역사현장과 생활현장에 탐색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시도할 만하다. 또한 자신이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일과 놀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거리가 될 것이다.

〈표 7〉

자주 가는 곳과 놀이

	긍정	중간	부정
1. 친구와 만나서 하는 놀이는 친한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	60.7	28.2	11.1
2. 남자가 주로 가는 곳은 당구장과 술집, 여자가 주로 가는 곳은 커피숍과 오락실이다.	38.0	46.2	15.7
3. 대학문화와 술문화는 떼어 수 없는 관계이다.	46.6	34.4	19.0
4. 고독이는 친교와 스트레스해소에 도움이 된다.	9.8	33.8	56.4
5. 여행보다 더 좋은 놀이는 없다.	42.0	45.9	12.1

〈표 8〉 한주일동안 친구들과 간 장소와 횟수

장 소	횟 수			
	한번	두번	세번이상	없음
동아리방	5.6	6.0	23.3	64.6
휴게실	13.8	16.4	34.8	35.1
전자오락실	15.4	12.5	20.0	52.1
당구장	11.5	9.8	14.1	64.6
볼링장	8.5	0.7	0.7	90.2
쇼핑하는곳	12.8	3.9	3.6	79.7
카페, 커피숍	28.9	19.3	25.9	25.9
호프, 맥주집	23.3	21.0	14.4	41.3
술집(주점 등)	23.0	8.5	8.2	60.3
디스코텍	2.0	0.3	0.3	97.4
극장	10.2	1.6	1.6	86.6

3. 모임

친구관계의 연고유형은 자연과 학연이 핵심이다. 또한 같은 학교나 생활권 내에서도 학과, 동아리, 관심 그리고 종교에 따라서 친구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친구관계가 단짝의 범위를 넘어서면 끼리끼리(짝패), 패, 패거리 수준에서 소모임으로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소모임은 단짝과 달리 상호 생일잔치를 챙겨주고, 성원 상호간 집안의 경조사에 성의를 표시하기도 한다.

대학에서 이러한 소모임은 고등학교 동문회가 가장 전통적인 모임이다. 입학시험날부터 후배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면서 동문회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선배동문들은 입학 초기부터 신입회원 환영식, 회장선출, 종강파티, 개강파티, 체육대회, 졸업생환송식등 갖가지 명목으

로 일년이면 몇차례씩 모임을 주선한다. 동문이 많은 학교는 단독으로, 동문이 적은 학교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인접 여(남)학교와 연합으로 동문회를 구성하고, 형편이 안되는 시골학교 출신자는 향우회로 이를 대체한다.

이러한 동문회는 고향을 떠나고, 정든 고등학교를 떠난 대학신입생들에게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좋은 모임이기도 하지만, 근거없는 “연고주의”를 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 소재 대학에 지방 고등학교 출신자의 수자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동문회 활동은 게시판의 요란스러움에 비해서 크게 퇴색되어 가고 있다. 오히려 동문회와 같이 형식적인 모임보다는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끼리 정기적인 친목회(클럽활동 등)를 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클럽활동은 지방출신자 보다는 서울에서 자란 사람들이 고등학교때부터 하던 소모임을 고교졸업이후에도 재속해서 이

어나가는 경우도 많다.

대학내에서의 일상적인 소모임은 학회활동과 동아리활동이 핵심이다. 한때 학회활동과 동아리활동이 지극히 이념지향적인 활동에 경도된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전공연구와 취미활동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동아리활동은 대학생활에 활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는 신앙공동체가 다른 모임에서 느낄 수 없는 또다른 기쁨을 준다.

이러한 모임에 대해서 성별차이를 느낄 수 있다. 특히 남자는 여자보다 동문회의 필요성과 함께 “연고주의”의 폐해를 훨씬 더 느끼고 있다. 이러한 성별차이는 남학생의 경우 지방출신자가 많고, 동문회활동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친목회, 신앙공동체, 동아리활동에 있어서는 성별차이가 거의 없고, 남녀 모두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9〉

친구와 모임

	긍정	중간	부정
1. 동문회는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좋은 모임이다.	35 1	42 3	22 6
2. 동문회는 근거없는 “연고주의”를 키우기 쉽다.	23.6	46.6	29 8
3. 나는 친구들과 정기적인 친목회(클럽등)를 하고 있다.	37 0	11 1	51 8
4. 신앙공동체는 다른 모임과 질적으로 다르다.	35 1	39 7	25 2
5. 동아리활동은 대학생활에 활력을 준다.	47 9	44 6	7 5

대학생의 친구관계는 한 사람의 대학생활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졸업후 “사회생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친구관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차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끼리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고 결국 “끼리끼리” 일 수 밖에 없

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고교때 친한 친구라도 그 친구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게 되면 점차 사이가 멀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 때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한다.

대학생활에서의 친구관계가 사실상 학교를

통한 친구관계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친구관계와 사회불평등은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다. 또한 사회생활에서는 대학동문보다 고등학교 동문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

친구관계와 사회생활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성별차이는 크지 않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더 친구관계는 비슷한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형성되어 결국 “끼리끼리”라고 보고, 남자는 여자

보다 고등학교동문에 대해서 강한 애착을 보인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도 학년이 높을수록 비슷한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친구관계가 형성되고 사회생활에서 대학동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생활 초기에는 고등학교때의 관념이 친구관계에 남아있으나, 대학생활을 더하고 졸업후 진로와 취업을 생각하면서 점차 친구관계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10>

친구와 사회

	긍정	중간	부정
1. 친구관계는 결국 “끼리끼리”이다.	51.8	37.0	11.1
2. 고교때 친한 친구라도 그 친구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게되면 점차 사이가 멀어진다.	28.5	41.0	30.5
3. 비슷한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친구관계가 형성된다.	40.3	34.8	24.9
4. 친구관계와 사회불평등은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다.	21.3	44.3	34.4
5. 사회생활에서는 대학동문이 고등학교동문보다 중요하다.	12.1	53.4	34.4

V. 대학생의 건강한 친구관계를 위하여

지금까지 “대학생의 친구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란 물음의 답을 찾고자 하였다. 필자는 본론에서 이 물음을 대학생에게 친구는 누구인가, 대학생은 이성친구를 어떻게 사귀는가, 대학생은 친구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란 질문으로 쪼개어서 그 답을 제시하였다.

대학생들은 친구는 가족 못지 않게 중요한 존재이고, 오래 될수록 좋으나, 속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줄어들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친구는 보다 정적

이고 대학교 친구는 폭은 넓어지고 관계는 형식적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생의 가장 친한 친구의 주류는 동성, 동년배, 대학생으로, 자신과 동질성이 높은 사회집단이다. 주된 연고는 중·고교 동창이 가장 많고, 다음은 대학친구, 고향친구의 순이다. 대학생들은 1학년 때에는 고등학교의 친구관계에 크게 의존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학의 학과와 동아리에서 친구를 사귀고, 차차 동성 관계에서 이성관계로 이행한다.

대학생들은 고등학생의 이성교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부모의 시각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만, 대학에 입학한 후에야 이성친구를 사귀도록 허용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표 11〉

친 구 학

	긍정	중간	부정
1.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친구학” 강좌가 필요하다.	54.4	24.6	21.0
2. “친구학” 강좌가 개설되면 나는 수강신청을 하겠다.	57.7	18.0	24.3
3. “친구학”에 관한 입문서가 필요하다.	46.9	27.2	25.9
4. “친구학” 입문서가 출판되면 나는 살 뜻이 있다.	38.7	34.1	27.2
5. 대학생을 위한 “친구학 개론”에 대한 귀하의 제안을 간략히 쓰시오.			

고백한다. 고등학교 졸업후 이성교제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올바른 이성교제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 나오기 때문에, 상당수의 대학생들은 동성친구는 가까워 질수록 허물이 없고 이성친구는 가까워질수록 부담스러우며, 나이가 들수록 “이성친구”라는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미팅이 대학생활에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부이고, 더구나 미팅을 자기 반쪽을 찾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여기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며, 미팅은 대부분 일회성 만남으로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생은 이성친구가 연인이 되기에는 미팅보다는 일상생활속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인생의 선택중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 배우자 선택이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친구관계의 어려움은 단지 이성교제에 그치는 문제는 아니다. 동성간의 우정도 유지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우선 내마음을 열어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이다. 우정은 싸우면서 자란다는 말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점차 친한 친구일수록 예의를 지키면서 사귀어야 하고, 친구사이라고 안보면 멀어지게 된다. 청소년기의 친구관계의 특징은 놀이이다. 대학생들이 친구와 만나서 자주 가는 곳과 자주하는 놀이는 성별

차이가 큰데, 남자가 자주 가는 곳은 당구장과 술집이고, 여자가 주로 가는 곳은 커피숍과 쇼핑 장소이며, 남녀 모두 휴게실, 동아리방, 오락실을 자주 찾는다.

친구관계의 연고유형은 지연과 학연이 핵심이다. 형식적인 동문회 활동은 점차 줄어들어 가고, 친한 친구와 함께 클럽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대학내에서의 일상적인 소모임은 학회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핵심이다. 대학생의 친구관계는 한 사람의 대학생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졸업후 “사회생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생활에서 대학동문보다는 고등학교 동문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견지하는 사람이 많지만, 대학생활을 더하고 졸업후 진로를 생각하면서 점차 대학동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구관계와 사회불평등은 떨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필자는 대학생의 친구관계를 이해하였으면, 대학이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작업의 하나로 필자는 학생들에게 친구의 의미, 친구의 종류, 이성교제, 친구와 여가, 친구와 사회생활등을 이해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친구에 대한 이러한 학문적 접근을 편의상 “친구학”이라고 부를 때,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친구학” 강좌를 개설하고, 친구학 입문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친구학”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그러한 강좌가 개설되면 수강신청을 하겠다고 한다.

참 고 문 헌

- 김영철(1986), 한국대학생의 문화화 과정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유신(1990), “대학생 상담을 위한 조사연구 방법”, 대학생생활연구자료집 제 2집, 전국대학학생생활연구소장 협의회
- 문화방송(1991), '91 MBC 청소년백서.
- 박민향(1989), 대학생 씨클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연맹 부설 한국청소년연구소.
- 신민경·채혜원·송화선(1989), “대학생 관계망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가정대학, 태 혁신 1호.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83), 현대사회와 청소년.
- 오인택(1985), 대학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성호(1982), “연배집단과 건전 청년문화의 육성”, 한국청소년 창간호, 한국청소년연맹, 1982 겨울호.
- 이용교(1989), 이춘청소년의 도시정책 과정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이춘재 외(1988), 청소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전병재(1991), “연배집단을 통한 청소년지도 활성화 방안”, 한국청소년 통권 3호, 한국청소년연맹.
- 전병재(1991), 청소년 친구집단과 비행간의 상관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갤럽조사연구소(a)(1985),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
- 한국갤럽조사연구소(b),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근간)
- 한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1989), 학생지도연구 제 4집.
- 황정규 외(1982), “한국청소년의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청소년의 생활과 산업사회의 사회과 교육.
- 황정규 외(1989), 한국인의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日本青少年研究所(1987), 日米高校生友人 關係調査, 昭和 62年度.
- B.Kandel S.Lesser, *Youth In Two Worlds*, 권이종 옮김(1991), 청소년 세계의 이해, 교보문고.